

한상기업과  
국내 청년을 지원하는



Overseas  
Korean  
Business  
Youth  
Internship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국내 청년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여·차세대 한상 육성·한민족 경제영토 확장·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현지 부족인력에 대한 맞춤형 인력을 한상기업에 제공하여, 기업과 인력간 미스매치로 인한 손실방지 및 분야별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인 해외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 사업 목적

- +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제공
- +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 + 한상기업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 제공 및 국내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 사업 개요

- + 사업명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 + 주관 : 재외동포재단(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 + 사업규모 : 한상기업 70 여 개 사 / 해외인턴 150명(연간)
- + 인턴기간 : 6개월
- + 모집분야 : IT,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 등 한상기업 희망 업종별
- + 근무국가 : 동남아, 미주, 아시아 등 한상기업 모집 국가별



## 인턴 지원 자격

- + 해외여행 또는 인턴 근무국가 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한상기업을 통한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
- + 만 34세(83.2.16.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 +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국가 지원자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 소지자만 신청 가능
  - 단, 연중 워킹홀리데이 VISA 발급 가능 국가(호주, 독일 등) 지원자 제외
  - 워킹홀리데이 VISA국가 확인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ww.whic.mofa.go.kr)



## 정부 지원

- + 지원금 : 인턴기간 매월 100만원 지원(최대 6개월)
- + 보험료 : 인턴기간 보험지원(최대 6개월)
- + 교육비 : 국내교육비, 숙박(4박 5일) 및 지방거주자 왕복 교통비 실비



## 기업지원

- + 매월 최소 US\$500 이상 현금 지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 지원(숙소, 교통, 식사 등) \*기업별 상이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권고하고 있으나, 기업별 지원금은 상이함.
- + 지원방법 : 기업이 매월 인턴사원에게 직접 지급



## 추가 지원

- + 대상 : 취업애로청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및 차차 상위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장애우, 여성가장
  - 다문화가족 자녀,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 미 취업자
- + 지원내역 : 매월 지원금 20%(2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자 인센티브

- + 인턴 후 취업확정시 취업비자 취득, 갱신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 지원내역 : 왕복 항공료(근무국가↔한국, 이코노미 기준)



## 자기 부담금

- + 항공료 및 비자 발급비(국가별 상이)



## 사업 참여방법

- +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 공지사항 참고



## 인턴 선발 과정



## 문의사항

+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gotogether@okf.or.kr)  
(+82-2-3415-0156)



## 2018년 사업 일정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은 연 3회 모집 및 선발 합니다.

기수	구분	일정	비고
5기	인턴채용 기업 모집	1월 26일 ~ 2월 11일	해외 구인처 발굴
	인턴채용 기업 서류 심사	2월 12일 ~ 2월 14일	해외 구인처 심사
	인턴 지원자 모집	2월 15일 ~ 3월 4일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3월 5일 ~ 3월 22일	기업별 지원자 심사
	인턴 지원자 면접 심사	3월 23일	국내 면접
	사전교육	4월 9일 ~ 4월 13일	4박 5일 집체교육
	인턴 출국	4월 23일 ~ 6월 30일	보험 가입
6기	인턴채용 기업 모집	4월 16일 ~ 4월 30일	해외 구인처 발굴
	인턴채용 기업 서류 심사	5월 1일 ~ 5월 24일	해외 구인처 심사
	인턴 지원자 모집	5월 25일 ~ 6월 17일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6월 20일 ~ 7월 8일	기업별 지원자 심사
	인턴 지원자 면접 심사	7월 13일	국내 면접
	사전교육	7월 23일 ~ 7월 27일	4박 5일 집체교육
	인턴 출국	8월 1일 ~ 9월 30일	보험 가입
7기	인턴채용 기업 모집	7월 30일 ~ 8월 13일	해외 구인처 발굴
	인턴채용 기업 서류 심사	8월 14일 ~ 9월 5일	해외 구인처 심사
	인턴 지원자 모집	9월 6일 ~ 9월 23일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9월 27일 ~ 10월 14일	기업별 지원자 심사
	인턴 지원자 면접 심사	10월 25일	국내 면접
	사전교육	11월 12일 ~ 11월 16일	4박 5일 집체교육
	인턴 출국	12월 1일 ~ '19.2월 28일	보험 가입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기수별 모집공고 참고 바람.



## 주요 사업 지침

### + 인턴 기간



인턴 기간은 근무 시작일 부터  
**180일(6개월)**입니다.

### + 주당 근무 일수 및 시간



인턴기업은 인턴사원과 최종 협의된 일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 일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사정상 야근 및 연장 근무 시 인턴사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야근 및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인턴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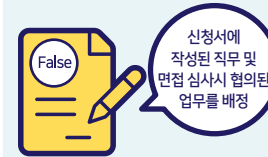
인턴의 직무는 기업에서 공개한 인턴신청서에 작성된 직무 및 면접 심사시 협의된 업무를 배정받으며, 현지 출국 후 기업 및 현지 사정 또는 인턴사원의 직무 수행능력에 따라 협의 하에 업무 변경 가능함.

### + 국내교육



본 사업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된 인턴지원자는 반드시 정해진 **합숙 국내교육(4박 5일)**을 이수해야 하며, **불참 시** 인턴근무 불가함.

### + 신청서 허위기재



인턴 지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업 중단 및 **본 사업 인턴사원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적용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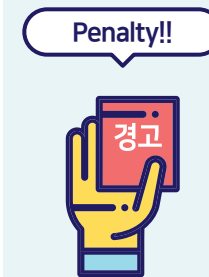
### + 중도포기



인턴사원은 인턴 최종합격 후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의 지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 중도포기 할 수 있으며, **중도포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발생한다.

- 1) 본 사업 최소 5년 이상 참가불가
- 2) 중도포기 일자 기준 보험 해지 환급금 전액 환수

### + 자격박탈



본 사업 운영규정 위반 등으로 **사업이 지속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경고 또는 자격박탈의 양정이 결정되며, 자격박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발생한다.

- 1) 본 사업 최소 5년 이상 참가불가
- 2)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매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3)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 환수
- 4) 국내 면접 행사 참석에 따른 지원금(항공료, 숙박료, 식대) 전액 환수



## FAQ(자주 묻는 질문)



**Q.** 현지 숙소 제공이 되는지요?

**A.** 기업별 숙소 지원은 상이하며, 숙소가 지원이 되지 않는 기업은 기업에서 숙소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Q.** 비자 발급은 누가 해주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요?

**A.** 비자 발급에 필요한 회사 측 행정사항은 회사에서 지원하며, 발급비는 본인 자부담입니다. 비용은 국가별 상이하며, 미국의 경우 (J-1, 6개월 기준) 통상 300만원 정소 소요되며, 본인이 직접 대행기관 등을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외 국가는 통상 20~30만 원 정도의 비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됩니다.



**Q.** 워킹홀리데이 비자 미 소지자는 지원이 불가능한지요?

**A.**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를 지원할 경우, 반드시 지원시점 최소 9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 하셔야 합니다. 그 외 국가 지원자는 무관 합니다.



**Q.** 어느 정도 규모와 업종의 인턴기업들 인지요?

**A.** 재외동포 기업으로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부터 중·소규모의 현지 기업들이며, 인턴 기업 모집 시 신청한 기업에 따라 업종 및 규모가 상이 합니다. 본 사업은 업종 및 직무에 대해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인턴 지원시 공개하는 기업별 정보를 통해 지원자가 희망 업종 및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Q.**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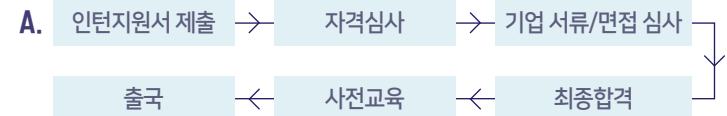
**A.**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을 위해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것이며, 인턴 근무기간 중 업무능력, 현지 적응력 등 기업 내부의 평가결과와 인턴 본인 스스로도 인턴채용 기업에 지속 근무 판단 후 양쪽 협의 하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기업별 기준에 따라 정규직 또는 계약직 상이함.*



**Q.** 선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저희 재단에서 인턴채용 기업을 모집 후, 지원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지원자의 참가 자격조건 등을 심사 후 자격조건을 갖춘 지원자의 지원서를 기업으로 발송 합니다. 각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인턴 지원서를 토대로 기업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서류전형을 하고, 화상, 유선 또는 국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기업에 최종 합격된 지원자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전 교육 이수 후 출국 및 현지 근무가 시작 됩니다.

# 고맙습니다, 미얀마!



미얀마 Channel CG holdings  
김수민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위해 막 휴학을 시작했을 때쯤이었다. 오랫동안 해외진출의 욕심을 조금씩 키워왔지만 막상 도전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았다. 관련 공고는 많았으나 정작 지원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도, 또 막상 괜찮은 기업인지 헛갈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던 중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기업 해외인턴 1기 모집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정부지원 사업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출신 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의 인턴십이라 신뢰가 높았다.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가 보고 싶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기에 나는 고민없이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미얀마에 있는 Channel CG Holdings라는 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누가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던가. 내가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걱정부터 밀려왔다.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떠나게 되니 여러모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가서 적응은 할 수 있을까, 일은 잘 할 수 있을까, 살아 돌아올 수는 있을까. 그렇게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을 안고 차근차근 출국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인턴생활을 꿈꾸며, 나는 미얀마로 떠났다.

## 미얀마에서 실무를 경험하다!

내가 근무했던 곳은 미얀마 양곤에 있는 'Chinn Goo Shop'이라는 한국 제품 전문 판매장이자 생방송 홈쇼핑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Chinn Goo Shop(친구샵)'이라는 오프라인 매장과, MWD라는 미얀마 공영 채널을 통해 라이브 홈쇼핑을 진행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나는 마케팅 및 디자인분야로 지원을 했었는데, 주된 업무는 방송에 필요한 각종 현수막과 소품 디자인, 제품 카탈로그나 미얀마 한인잡지 등을 포토샵을 이용해 디자인 작업을 하는 일이었다. 아직 미얀마에는 방송 중 CG를 덧입힐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 쇼호스트가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벼운 판(Board)을 들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 판을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디자인 업무를 했다. 전공생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내가 만든 판이 TV 나오고, 작업한 홍보물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날이면 직접 미얀마 소비자들과 만나 마케팅을 경험해볼 기회도 있었다. 미얀마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가 아닌 현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보물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한국제품의 매력'을 어필해보려 노력해보기도 했다. 현장 프로모션은 한국 제품들이 미얀마에서는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무슨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점을 어필해 현지화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라이브 홈쇼핑을 진행하는 날이면 방송국에 따라가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도 있었다. 직원들이 쇼호스트가 되어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하고, 내가 만든 판넬이 방송에 나가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미얀마의 방송국은 상당히 조촐했다. 방송 세트라고는 현수막과 거치대, 홈쇼핑을 위한 제품들이 뿐이었고, 촬영은 조명 몇 대와 카메라 5대로 하는 것이 전부였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뒤에 서서 방송을 감시하며, 낮은 전력 때문에 생방송 도중에도 정전이 되어 방송이 잠시 중단이 되는 일도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디자인과 마케팅 업무뿐 아니라 수출 컨설팅과 관련된 일도 경험해볼 수 있었다. 우리회사는 싱가포르에서 한국기업의 아세안(ASEAN)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 GOODHILL(KOREA CENTRE)라는 기업의 자회사인데, 미얀마에서 진행되는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작은 일들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한번은 1사 시장개척단 행사를 전담으로 맡은 적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온 기업대표님과 함께 미얀마의 바이어들을 찾아다니며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무역과 수출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 생생한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은 이 수출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지사에서도 이어 하고 있다.



### 아세안(ASEAN)을 탐(探)하다

불행은 곧 기회라고 했던가, 미얀마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가 70일 밖에 되지 않아, 나는 두 달에 한 번씩 주변국에 다녀와 비자를 갱신해야 했다. 그 덕분에 6개월동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턴이 끝난 후엔 베트남에도 다녀올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회사에서도 휴가기간을 넉넉하게 받아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나라 곳곳을 다닐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아세안(ASEAN)이라는 시장을 조금 알고 나니, 나가서도 보이는 게 달랐다.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와 생활 모습은



어떤 지 비교하며 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떤지, 한국 제품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현지화가 됐는지 등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또 배워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인턴 생활에 가장 만족하는 이유도 6개월간 더욱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미얀마에서 살아남기



근무시간에 정전이 되어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직원들

미얀마는 한국의 1960년대부터 2010년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생활하는 환경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열악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위생환경 등 처음엔 만족스러운 게 하나 없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지내고 있는 건물에 모든 불이 꺼진 걸 확인할 때면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5시간이 넘게 정전이 되는 건 일상이고 그때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들어오길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짐을 챙겨 게스트하우스로 가 잠을 자야 했기 때문이다.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수도 없겠지만, 그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국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조금 적응하고 나니 불편한 것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정전이 되면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그런대로 시간을 보냈고,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은 마트에서 생수 10병을 사와 몸을 씻었다. 곳곳에서 내가 꿈쩍이 싫어하는 바퀴벌레와 쥐가 보이면 그저 눈을 감고 못 본 척을 하고 지나갔다. 어두운 밤, 집 앞에서 짙어대는 큰 개들이 있으면 옆집으로 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주머니에게 온몸으로 개들이 무섭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웃으며 따라와 주시고는 개들을 멀리 밀어내 주셔서, 다음 날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로 과자를 드리며 인사를 했다. 그렇게 나는 불편한 것들에 하나하나 익숙해지며 미얀마 생활에 적응해갔다.

### 부유하진 않지만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미얀마는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375\$에 불과한 최빈국 중 하나인 나라가 세계 기부지수 1위라니 믿을 수 있겠는가. 한날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꿈이 무엇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첫번째 대답은 프로페셔널한 디자인

너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럼 결혼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냐고 되물었더니 미얀마에는 자신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 뿐만 아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기에는 곳곳에서 홍수피해가 자주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가거나 모금을 해 수재민들을 돕는다. 본인의 월급이 15만원인데 10만원을 가불해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화는 불교의 영향이 크겠지만, 생활 속에서 기부를 실천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에서 나눔은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순수한 웃음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물질적 풍요와 바꿀 수 없는 배려와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는 참 멋진 나라라 생각했다.



### 취업으로 이어지기까지

6개월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저 며칠동안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허무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내가 미얀마에서 6개월동안 살았던 게 맞긴 했나, 그동안 꿈을 꾸던 건 아니었을까,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다. 처음 미얀마로 떠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많은 선진국들을 놔두고 왜 그런 나라로 가냐며 위험한 나라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미얀마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인지 말이다. 미얀마에서 욕심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미얀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행을 하며 만났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앞으로는 사회가

말하는 정답처럼 살지 않아도, 온전한 나의 기준만 세워져 있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됐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나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인턴이 끝날 무렵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 제의를 받아 지난 9월부터 아세안비즈니스센터(Asean Business Center)라

는 곳에서 수출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이어 하고 있다. 동남아 진출을 원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부터 해외시장조사 등 다양한 일들을 차근차근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많이 혼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투성이지만 인턴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미얀마에서 6개월동안 살면서 느꼈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만큼 나도 더욱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미래에는 아세안 시장에서, 아니 더 큰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지고 소중한 기회를 준 기업과 재외동포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젊은날의 디딤돌, 한상 인턴십



인도 AA STUDIO CONSULTING  
모 선 용

## 젊은날의 디딤돌, 한상 인턴십

어느 덧 6개월의 인턴 생활이 끝난지 1주일이 되어간다. 인턴 신분에서 사원으로 바뀌어 적힌 명함과 회사 명찰은 아직 익숙치 않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하여 지원 하고 면접 후 출국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상념을 가졌으나 6개월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기우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 수기를 통해 나의 한상기업 인턴십을 돌아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 자기 소개

저는 인도 AA Studio Consulting 무역&물류 부분 신입사원 모선용입니다.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1기로 이곳에서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였고, 8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한국 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물류를 전공하였고, 올해 26살입니다.

## 한상기업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던 동기



해피무브 인도 지역봉사 당시

내게는 작년 여름 3주간 인턴십 겸 현장실습을 통해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인턴십을 통해 많은 직무 관련 경험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로부터의 스트레스보다는 조직 문화 및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업무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하던 차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저의 이러한 호기심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여름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봉사단'을 통해 인도를 잠시 경험해 봤던 것을 바탕으로 인도에 소재한 한상기업의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다.

## 회사 소개

내가 6개월을 보내게 된 'AA Studio Consulting' 은 인도 수도인 델리에 있으며 건축, 인테리어 턴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한상기업 이다. 배치 받은 부서는 무역 파트 이고 주로 한국 중소기업 제품, 특히 가구를 한국에서 인도로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입 통관 지원 & 현장 가구 설치 프로젝트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가구 무역 업무뿐만 아니라 전공을 살려 회사의 대형 건축 프로젝트 내 물류 관련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한상기업만의 특징

내가 인턴십을 수행한 AA STUDIO CONSULTING과 더불어 모든 한상기업의 대표님들은 배낭 하나와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한국을 떠나 전 세계를 누비며 어떤 경쟁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함으로써 성공을 일구신 존경 받으실 만한 분들이다. 이분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로 업무를 함께 하며 실무 지식 외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대표님으로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었다. 이러한 부분은 타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상기업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 가장 힘들었던 순간, 보람되었던 순간



가구 운송 도중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움푹달싹 못했던 컨테이너 트럭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약 1달간의 첸나이 출장 경험이었다. 출장 목적은 가구 수입 업무와 더불어 서류상으로만 보던 컨테이너들이 하역되는 것을 직접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건물에 가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인도 특성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장 상황들로 겨우 3개월 차에 불과했던 내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또한 건축 현장의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외로움과 더불어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는 배가되었다. 하지만 한 달여 간 가구 조립 프로젝트를 마치고 클라이언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더불어 '한국 가구는 정말 좋네요.'라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내게 이러한 힘든 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해주었다.



첸나이 현장에서 한달간 함께 고생해준 동료들

### 정부와 기업의 지원

인턴십에 선발되면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약 1주일간의 파견 전 국내교육과 더불어, 6개월간의 여행자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국 후 매달 100만 원의 해외체류 지원비와 인턴십 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파견 기업 차원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약 500달러 상당의 현물이나, 그에 상당하는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파견국에 따라 비자 발급이 필요할 경우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근무 중인 AA Studio Consulting의 경우 회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숙소를 지원받았으며, 매일 저녁 식사 때 한식이 제공되어 이로 인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 해외 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해외에서 직접 일을 해보니 사회, 문화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 등 인도에 다방면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업무에 관련하여 많은 인도 시장 리서치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아직도 정보력, 자금 등의 부족으로 해외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해외에 특히 인도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인도의 성장 스토리를 현지에서 직접 보며 내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해외 취업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었다.

### 한상기업 청년인턴십만의 매력

**우선 첫 번째로 정부지원 해외인턴이라는 것이다.**

교내 인턴십이나 어학원을 통한 인턴십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턴십 제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파견 시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인턴 기간 동안 제공되는 KOICA 봉사단 수준의 여행자 보험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매니저님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타 인턴십에 비해 인턴이 선택할 수 있는 해외 국가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내가 선발되었던 1기에는 동남아, 미주, 오세아니아부터 아프리카 가나, 제가 파견된 인도까지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폭넓게 주어졌다. 해외 오지에서 수출 역군 역할을 하는 종합상사 주재원과 같이, 한상기업 청년인턴십은 타 인턴십과 비교하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의 선택지가 매우 넓기 때문에 참여자 본인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세 번째로 주도적인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본인이나 주위의 친구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한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는데, 그 인턴ship들에 비해 한상기업 청년인턴ship은 인턴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Capa가 매우 넓다고 생각한다. 나의 인턴ship을 예로 들면, 인턴 3개월 차에 제가 맡고 있는 무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달간 홀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인도인 동료들과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대기업 인턴ship만을 고집했던 이전의 내 모습에 대한 반성의 시간과 더불어 제 커리어 설계와 직무 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방인도  
의전 프로젝트 당시

### 앞으로의 목표

단기간에 걸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이다. 전공인 물류와 SCM에 관한 고급 자격이자 국제 자격인 CPIM을 취득하여 커리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상용어로 쓰이는 영어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비즈니스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그들의 언어인 힌디어를 공부하여 조금 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업무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 IIT나 델리 근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물류SCM 전공 또는 산업 공학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고자 한다. 이로써 인도를 깊게 알고, 산업의 혈류인 물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인도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는게 목표이다.

### 한상기업 청년인턴ship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 첫 번째로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취업 준비를 해왔던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나는 사실 이번 인턴ship을 지원하기 전에 대기업 최종면접과, 중견 기업의 채용형 인턴ship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최종면접은 탈락하긴 했지만, 후자인 채용형 인턴ship에 합격하여, 한상기업 청년인턴ship의 국내 교육을 받으며 두 인턴ship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번 기회를 포기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국 대신 인도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의 나는 6개월 전의 나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턴ship은 내게 대기업만 추구하였던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과 더불어 제 커리어에 인도를 더하여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한상기업 청년인턴ship이 자신이 살아왔던 커리어에 6개월간 경험했던 현지 경험을 더하여 전보다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 두 번째로 해외인턴은 경험해보고 싶은데, 관련한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한상기업 청년인턴ship의 경우 1차 서류 전형에서 일정 정도의 수준만 넘으면 지원한 한상기업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서류 전형에서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타 기업에 비해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으므로, 자신이 지망한 기업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동기와 열정을 적절하게 어필하신다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어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외국어 스피킹 능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해외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한상기업 청년인턴ship은 위에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해외 진출에 대한 열정과 배낭 하나만 메고 오신 세계 각 지역의 한상 대표님들이 설립하신 회사들이다. 이처럼 한상기업은 다른 한국 회사들보다 그 지역에 대한 정보나 경영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자신의 충분한 노력 하에 그 나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상기업 청년인턴ship은 해외 지역 전문가의 커리어를 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단연코 최적의 선택지라고 말하고 싶다.

###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방법

#### (1) 직무 선택

자신이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에 맞추어 직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하고 싶은 분야에 맞추어 직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견 국가와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맡을 업무 분야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국가 선택

나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봉사단'이라는 경험이 있어, 직무인 '물류'와 '인도'라는 국가를 쉽게 선택하였지만, 만약 제가 인도 봉사활동이라는 경험이 없었다면 '베트남'을 선택



했을 것이다. 교내 다양한 전공 프로젝트로 인해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국가였기 때문이고, 내 직무의 성장 가능성이 타 국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를 각 국가에 대입하여 국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국가 사전 조사를 통해 파견 국가에 대한 관심과 한상기업 청년인턴십에 대한 열정이 생기리라 확신한다.

### (3) 한상기업 선택

직무와 국가가 선택되었다면, 한상기업을 선택하여야 한다. 파견 희망 국가에 두 개 이상의 한상기업이 있는 경우 각 기업의 회사소개서를 열람하여 주요 사업 범위와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한상기업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의 경우 사전에 회사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블로그로부터 회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대표님에 대한 인터뷰가 실린 뉴스 기사를 보고 영감을 받아 회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만약 회사에 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면, 최대한 실례가 되지 않게 각 회사의 인턴 채용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KBS 9 뉴스 (인도 상공회의소 MOU 체결 당시)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지원자에게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하여 지원 하고 면접 후 출국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상념을 가졌으나



두산 인도법인 사옥 인테리어 프로젝트 마무리 후 회사 동료들과

6개월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기우였다는 생각이 든다. 인턴십이 끝나고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돌아와 보니 어느새 너무 바쁘고 각박하게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낯설음을 느끼게 되었다. 불과 수개월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내 모습이 후회스럽기도 하다.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사람들은 나를 바쁘게 스쳐 가지만, 이제 여유와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 한상기업 청년인턴십이 지원자분들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믿는다.



# 2017년, 꿈을 가졌고 아름다운 방향을 통해서 성장하다

베트남 SMBL  
이용선

두서 없이 써내려 가는 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힘이 될 수 있는 글이 되기를 바라며, 2017년의 저를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준비해왔던 시간들과 2017년 노력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들로 인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내가 해냈다는 마음과 꿈 꾸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기쁨이 공존한다. 2017년 초부터 “해외취업”이라는 네 글자를 향해 심없이 달려왔으며, 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나는 고민했고 결국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2017년 초 그 때의 시간과 많은 일들을 지금부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나의 길을 꿈 껴 보고자 한다.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나는 많은 해외취업 관련 업체, 기관, 컨설턴트 서비스 해외취업 패키지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외취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많이 알게 되었고 해외취업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해외취업에 성공하신 분들과 교류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또한 이 블로그를 통해 한상기업인턴십의 존재 여부와 SMBL에 대한 문의 또한 한상기업인턴십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서 내 블로그를 찾아 주시기도 하였다.

인턴십을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적응하기에 바쁘다 보니, 잘 운영하지는 못하였지만, 나와 같이 해외취업을 갈망하고 한상기업인턴십을 통해 꿈을 펼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는 차후에도 내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일 것이라고 나는 자신한다. 나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였다. 그렇게 준비하던 시간들은 나를 “준비”라는 명목으로 위로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조급함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설피고 참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카페에 무작정 장문의 글을 올려서 나를 고용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나를 우선적으로 칭찬하고 싶고 그 기간 동안 나를 지지해 주셨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

## 1.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인턴십 2기 그 길을 선택하기까지의 여정

해외취업을 준비하면서 간혹 합격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망설임으로 인해 포기하기도 하였고 불합격의 고배를 여러 번 마시기도 하였다. 이력서를 넣었던 곳은 100곳이 넘는다. 나의 현실적인 경쟁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과 나의 20대의 노력이 이렇게 모자랐다는 약한 마음가짐 또한 내가 언제든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괴롭혀 왔다.

준비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매주 1권씩 책을 읽기도 하였고 이력서를 제외하고도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나의 열정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쳐 보고자 했던 그 열정 하나만으로 도전했던 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하였지만 나는 내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내가 해외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미래를 꿈 꾸며 노력하자라고 다짐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했다.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자, 목표를 꿈꾸는 자에게 세상은 배신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중순 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한 무역 회사에 합격하였고 4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 예정이었으나, 내가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곳, 즉 확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곳을 지원하면서 2017년 초 1기에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던 한상기업인턴십에 4월 6일 최종 면접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다. 출국 일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나는 최종 결단을 내려야 했고 캄보디아 측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SMBL이라는 곳에서,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내 미래를 꿈 껴 보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찾아 보았기도 했고 현재의 경제 성장률과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잠재적인 시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굉장히 매력 적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는 베트남을 선택하게 됐다.

하지만 이 외에도 SMB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게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어떻게 일이 재미가 있을 수 있느냐며, 많은 분들이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실질적으로 5월 1일 이후로 SMBL에서의 모든 생활이 즐거웠고 바쁠 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았다고 생각 했지만 하루 하루 매번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렇게 나는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포기하고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우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5월 19일 입국 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가장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가족이다. 가족을 떠나는 길은 항상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뉴질랜드를 향했을 때도, 2017년 5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어머니와 손을 흔들며 헤어지던 그 순간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다. 하지만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서, 부모님에게 “아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게 꿈 “한 부모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했다. 하루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아버지가 친구 분들과 악주를 드시면서도 우리 아들 베트남에서 정직원 채용 되어서 일 잘하고 있고 방송에도 나왔다고 자랑을 하셨다고 했을 때 정말 베트남에 온 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분명히 단순한 해외 인턴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목표는 확실하고 뚜렷했다. 이 인턴십을 바탕으로 내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험대, 즉 인턴십을 바탕으로 해외취업을 이루어 내고 싶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기도 했고 내 자신에게조차도 떳떳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모든 앞 일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나는 내가 이루어 냈던 과거의 결과물들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신감과 열정적으로 임하는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설렜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그 결과물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결국 “도전정신” 하나만으로 도전했고 지금 나는 성장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향상심을 바탕으로 성공이라는 두 글자에 다가가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설렘”으로 정의하고 설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20대 청춘은 자랑스럽다.

## 2. Small Medium Business Link



Small Medium Business Link

이제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SMBL”은 Small Medium Business Link의 약자로서, 한국 중소기업의 대 베트남 진출 관련 비즈니스 링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간네트워크이다. 2005년부터 13년간 이러한 역할을 도맡아 오면서 베트남 만이 아닌 현재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대 인도차이나반도에 수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유관기관과의 수출입분야(시장개척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해외지사화사업,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장 타당성조사, 대학교 연수프로그램 진행, PCO분야, 전시회 진행 등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비즈니스가 구성되어있다.

내가 6개월 동안 진행 해왔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시장조사(대표적으로 AT 한국농수산물공사), 시장개척단(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청, KITA, 매일경제 등) 중소기업 진흥공단 해외지사화사업,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담당했다. 시장조사를 통해서는 베트남 시장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왔으며, 각 정부기관의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행사 전체를 진행 및 감독하며, 바이어 매칭 발굴 업무를 담당했고 많은 중소기업 담당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해외지사화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는 바이어 매칭 및 시장조사는 물론 베트남 바이어 3개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담당 업체의 대 베트남 수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고 내가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안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베트남 바이어와 술 한잔 기울이며, 얘기를 나눌 때는 “아 내가 베트남 사람하고 술도 같이 먹는 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꿈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다. 2018년 SMBL은 세일즈 & 유통분야에서 지원자의 역할이 아닌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세일즈하고 유통하는 선두자로서의 역할을 도맡고자 한다.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에이전트 지사 업무 수행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및 대 인도차이나반도의 네트워크를 더욱 더 견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이는 곧 SMBL이 한국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대표 유통 및 세일즈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발판이 될 것이며, 그 중심에서 있고자 하는 것이 나의 단기적인 목표이다. 11월 17일 SMBL에서의 나의 인턴 기간은 마무리가 되었으며, 나는 앞으로도 SMBL 마케팅 부서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나의 꿈, 성공,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 성장 해나갈 것이다.



### 3. 하노이 생활 2017.05.19 - 2017.11.29

어느덧 하노이에 온지도 6개월이 다 되어간다. 이번에는 나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다들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인턴십에 오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인가? 베트남 SMBL은 어떻게 업무가 진행 되는 것인가? 등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1) 06:40 - 07:40 : 기상 및 출근

기상 및 출근 준비를 하고 UBER를 타고 출근한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대중교통 시설 등이 잘 발달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교통을 UBER를 통해 해결하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택시 또한 저렴하지만 UBER는 꽤나 많은 프로모션이 제공 되기도 하고 출근 시에 약 20,000 VND - 30,000 VND 내에서 회사까지의 교통비를 해결할 수 있다.



#### (2) 07:50 - 08:10 : SMBL 전 직원 오전 미팅

SMBL에서는 매일 오전 미팅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 업무를 보고한다. 마케팅 회사 특성 상, 프로젝트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진행 하기 때문에 팀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오전 미팅을 바탕으로 하루 업무를 해결 해나가고 프로젝트들을 순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또한 매 달 마케팅 직원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마케팅 관련 주제로 영문 PPT를 준비하고 이를 월, 수, 금의 패턴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시간 또한 서로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나에게도 참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시간이며, 지금 또한 그렇다. 나 또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매달 준비하면서 좀 더 마케팅 직원으로서의 지식을 쌓아 올 수 있었다.

#### (3) 08:10 - 18:00 : 하루 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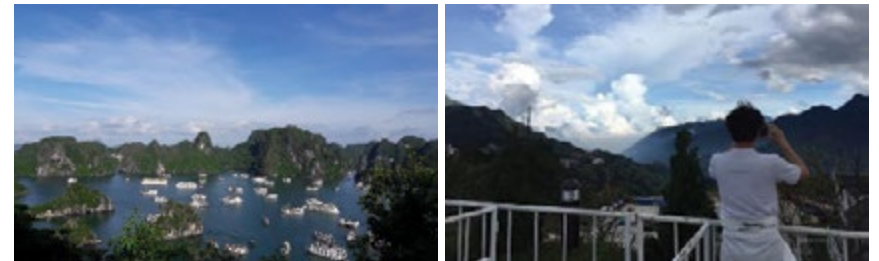
보통 한국 직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베트남 팀원 업무 관리, 프로젝트 진행 현황 점검 및 베트남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각종 애로사항 해결, 한국업체와의 소통을 통한 요청사항 전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제안서 및 기획서, 프로젝트 보고서 등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나는 6개월 여간의 인턴 기간 동안 이를 맡아왔다.



베트남 문화 중 한국 사람이 신기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낮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 직원들은 빠르게 점심을 먹고 점심 시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30분 - 1시간 정도 숙면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국 직원들끼리 서로 신나게 떠드는 순간에도 아주 잘 잔다...하하하

그렇게 하루 일과가 마무리 되고 각자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마무리이다.

#### (4) 주말 및 여행



운이 좋게도 나는 하노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다. 주말에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노이 구석구석을 돌아 다니면서 평일에 나름 피곤이 쌓였던 것들을 날려버리곤 한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도 관광지로 유명한 하롱베이, 사파, 짱안 등을 여행 다니면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베트남 현지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 4. 6개월이라는 기간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었는가?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베트남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업무 외적으로도 주변 외곽 지역을 여행하고 많은 곳들 둘러보며, 베트남이라는 곳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 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꿈 껴야 하는 지, 내 자신을 바른 길로 안내 해주는 한 터널을 만들어주었다.

## 5. 해외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커리어는 하나의 목표지점에 깃발을 꽂는 것과 같다고 나는 정의한다. 그 목표 지점에 깃발을 꽂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이고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깃발을 꽂기 위해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대기선 밖으로 나와서 출발할 수 있어야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해외취업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싶다.

“20대에는 하고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30대에는 하고싶은 것이 많은데 할 줄 아는게 없고”

“40대에 비로소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20대에도 하고싶은 것들이 있고 성공을 하고 자기 꿈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행복”이라는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삶이라는 트랙 중 가장 아름다운 20대라고 다들 말 하지 않는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마음 또한 나를 더 한층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잣대 중 하나일 것이다.

“도전의 결과는 성공 또는 성장이다”라고 한다. 20대 청년 도전을 통해서 성공할 수는 없더라도 성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성장한다면 누구든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해외취업을 “메이저리그”에 대비하여 정의한다.

야구선수로서의 최고의 성공은 다들 메이저리그 진출이라고 정의한다.

야구 선수로서의 최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곳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해외취업 또한 같다. 한국 사람 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 곳에서 여유로운 생활만을 바라봐서는 오랜 기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 남기 위해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즐길 것이다. 모두가 생각하는 메이저리그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메이저리그는 글로벌 시장이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달릴 것이다. 물론 힘든 역경이 찾아올 시기도 있을 테지만 이 것을 버텨내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나의 모습을 나는 기대하고 그 것을 통해 성장하는 나를 보며 오늘 하루를 또 보낸다.

항상 나는 생각한다.

꿈 꾸는 것은 자유이며,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즐거울 때 갈망의 정도는 커질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나의 야망은 그 꿈을 이루어 낼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앞으로 내 삶에서 성공이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 것을 밝혀내고 다가가기 위해 베트남 시장의 전문가가 되려 한다.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모든 것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도전을 통해 개척하고 “행복”이라는 삶에 다가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6.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먼저 6개월 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 해주신 덕분에 베트남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베트남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갈 지는 저 또한 모르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많은 혜택을 주신 덕분에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값진 결과물들을 얻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제 삶에 있어서 큰 자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으로 베트남 생활에 임할 수 있었고 이를 가능케 만들어 주신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문가를 꿈 꾸는 많은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턴십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베트남 시장에서 더욱 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실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말레이시아 U1 International  
구영원

대학의 마지막 학기와 졸업 직후, 한창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많은 좌절을 맛보던 때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스스로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후,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기에도 지친 상태로 학교 취업정보 게시판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한상기업 인턴 모집공고를 우연히 만났다.

처음에는 막연히 해외에서의 경험이 스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절반, 한국에서의 힘겨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머지 절반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업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레이시아 이민/투자/창업 컨설팅 전문기업 유원인터내셔널을 만나게 되었다. 평소 회계와 금융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이 회사가 자신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회사일 것이라 판단했다. 대표이사님과 만나 면접을 보고, 출국 전 미리 회사의 미래 프로젝트들에 관련된 레포트를 작성하고 향후 마케팅 방안에 대한 기획서를 제

출하는 등 단순한 인턴 면접이상의 전형과정을 거쳤다. 현실 도피에서 시작한 일이 누구보다 빠르게 실전에 투입되는 계기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 막연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정신 없이 그저 회사 상사 분들이 고객과 만나고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가 지났다. 이후 가장 먼저 하게 된 업무는 회사의 비자 업무 프로세스 정리였다. 모든 프로세스를 최대한 축약하고 정리하는 업무였는데, 회사의 비자업무를 빠르게 숙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출근 직후 만든 자료를 온라인 마케팅에 이용하여 많은 고객들의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심지어 내가 만든 자료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람까지 있었다. 솔직히 괘씸하면서도 뿌듯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이 만든 자료가 바로 쓰이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 1주일 후부터 더욱 실전적인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현지 건설사 임원진들과 함께한 만찬회장 / 말레이시아 부동산 답사

1주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말레이시아 부동산이었다. 현지 건설사의 팀장이 찾아와 전사적 회의를 하는데 참여하게 되었고, 말레이시아의 중심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의 최고급 콘도미니엄 스타 레지던스의 신규 분양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이후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과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의 투자 기획자료를 만드는 것이 내 새로운 업무였다. 말레이시아 부동산은 커녕 한국 부동산도 잘 모르던 내가 말레이시아 수도 최종심에 위

치한 현지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프로젝트를 한국 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정리하고, 모르는 용어와 배경지식 등에 대해 검색하고, 회사의 과장님이 힘들어 하실 정도로 질문을 계속 하면서 겨우 50 페이지에 달하는 프로젝트 안내 기획을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더 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인턴 근무의 스타트를 끊은 나는, 즉각 부동산 부서의 충실한 서포터로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지 대형 건설사 임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회사의 대표로 미팅을 진행하여 한국 시장에 대한 분양 대행 권한을 따내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한국의 신입사원들이 겪을 수 없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인 만큼, 매우 빠르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규모의 건설회사에 파트너십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제안을 하는 등 '인턴'이라는 직책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전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다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지치는 날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이내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경험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판단을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과 회사원부터 사업가까지 다양한 직업의 고객들과의 만남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장래에 투자 또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배운 교훈들은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나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 한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시장, 금융, 경제의 이해도를 더욱 높여 진정한 투자자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엔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 나는 이제 정직원으로서 더욱 많은 것을 배워나갈 예정이다. 한상기업 인턴 과정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고, 정말 뜻 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높은 뜻을 가진 청년들이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번영하였으면 한다.

## 재외동포재단

### 주무부처 및 담당부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 • 설립근거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공포 '97.3.27)

#### • 설립경위

- 96. 05. 03.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97. 03. 27. 재외동포재단 설립 합의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5,313호) 공포
- 97. 10. 30. 재외동포재단 발족

###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사업

#### • 설립목적(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재외동포재단법 제2조)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
- 법령상 사업내역(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6th Floor,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Korea

+82-2-3415-0156

[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

